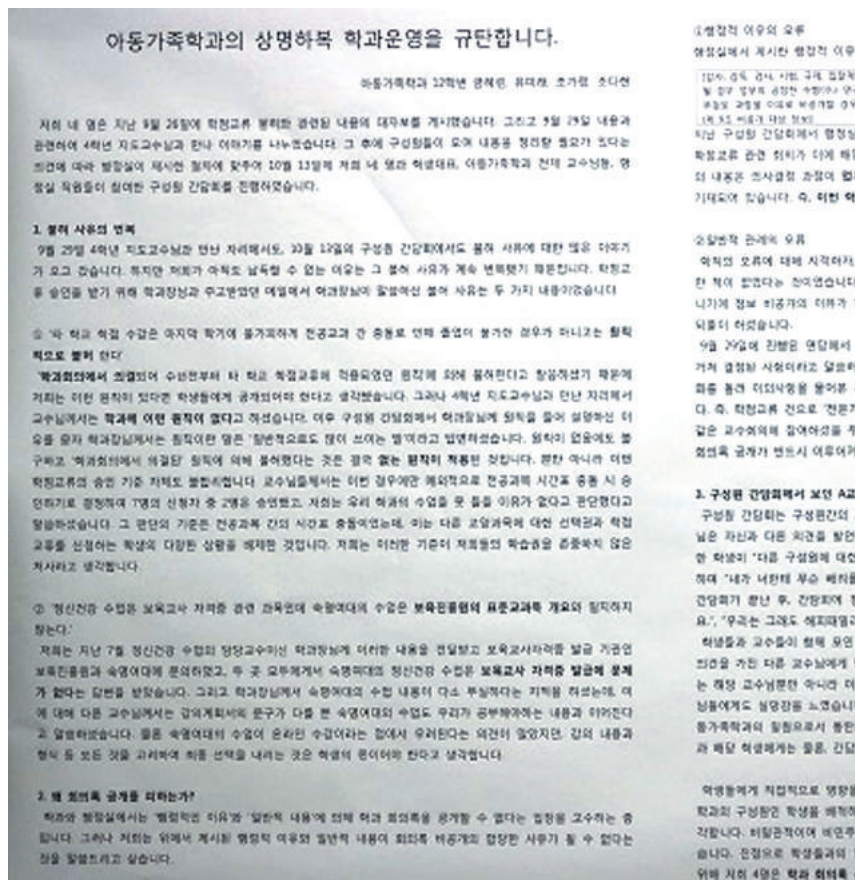
문화

▶1면에서 이어짐

아동가족학과 A교수는 “문서화된 내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공교수의 승인을 요한다’는 학칙이 분명히 있다”며 “정신건강 수업은 담당교수인 C교수에게 권한이 있었고 학점교류 요청 강의가 온라인 강의였던 점과 전공수업 충돌 등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학점교류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또 A교수는 “애초에 수업 담당교수에게 결정권이 있었지만 학생들을 배려하고자 추가적으로 학과회의를 통해 4대 1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학과회의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학과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과목 담당교수였던 C교수는 “학생들이 학점교류를 요구했던 강의가 온라인 강의였던 점이 여러 불허사유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금혜린 양은 “시간표가 임의로 변경된 상태에서 그 피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듯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적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심을 키울 뿐이다”고 주장했다. 조다현 양은 “학점교류 불허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들어서 그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니 의혹만 가중된다”며 “학점교류는 이미 끝난 문제이고, 학과 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동가족학과의 상명하복 학과운영을 규탄합니다.

▲ 지난달 31일 청운관과 생활과학대학 게시판에 붙은 두번째 대자보이다

학점교류에서 시작된 학과 내 권위주의적 운영에 대한 의혹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 중 또 다른 점은 간담회에서 A교수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한 B교수에게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고, 이를 제재하려 했던 학생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b교수는 "추후에 학과회의를 하면 이전의 학과회의처럼 다수결로 결과는 같을 수 있으니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A교수가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노라고 말했지만 B교수는 회의를 방해했고, 해당 교과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혜린 양은 "A교수는 당시 간담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왜곡하고 있다"며 "B교수가 회의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다현 양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교수의 권위적인 태도처럼 학과 내 ‘상명하복’식 운영이 의심스럽고 언행이 적절치 못했던 A교수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와 의견을 달리했던 B교수는 “소신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냈지만 다수의 학생과 교수, 직원이 있는 앞에서 반말과 폭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학과회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의결이라 소수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 없이 수적 우세로 의결하는 지금의 회의는 소수의 권익을 훼손하고, 독과점에 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평행선을 이루는 대립 속 제 3자의 대안은?

생과대 행정실 측은 “학칙 상 담당교수에게 학점교류 승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본질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학점교류 기준이 명시화돼 절대적인 학칙으로 규정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최적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과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학점교류와도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팽팽한 수평싸움에 대해서 아동가족학과 내의 제 3자의 입장은 어떠할까? 이민주(아동가족학 2014) 양은 "교수와 교수 사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무분별하게 타학교와의 학점교류를 승인할 경우, 교내에서 전공강의를 듣기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폐강으로 인해 강의를 못 듣게 될 우려도 있다”며 “명확한 학점교류 기준을 제시해 학점교류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계숙(아동가족학) 교수는 “물론 학생과 교수 사이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동시에 상호평등하고 배려적인 의사소통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수는 전문가로서 양질의 교육을, 교직원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을 대한다면, 신뢰가 형성돼 불통의 문제를 상당히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실 측은 “현재 구성원 간담회가 끝났고. TF 회의를 진행해 학점교류 등에 관해 각 그룹에서 준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승인 방식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아동가족학과 전체교원과 전체학부생이 참석하는 학과 간담회를 통해 TF 회의 결과와 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연거리 시행 3년차, 그 현황은?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서울】서울캠퍼스 정문 앞 도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흡연이 여전하다. 서울캠 금연거리는 정문 앞부터 회기파출소까지로 2013년 9월 지정돼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14년에 21건으로 시작해, 2015년 10건, 2016년은 10월까지 15건으로 총 46건이 적발됐다. 이중 20대 적발자는 39.1%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해당 통계치는 정기적인 단속 없이 관련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단속에 나서 적발한 수치로, 실제 흡연과 적발 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금연거리에서의 흡연은 더욱 빈번한데 동대문구청 보건정책과 이매경 주무관은 “금연단속반 인원이 2명이어서, 적은 인원으로 동대문구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 경희대학교 앞 금연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동대문구청은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단속 대상임을 홍보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적발자의 반발이 거센 것도 단속의 어려움이다. 동대문구청 금연단속반을 동행 취재한 결과 한 적발자는 “금연 안내 표지판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단속반에게 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금연거리 내 안내 표지판은 전봇대 형태가 19개, 스티커 형태가 63개로 총 82개가 설치돼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문부터 파출소까지 약 230m의 양쪽 인도에 5.6m당 하나씩 금연 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안내 표지판 수에 비해 표지판 크기가 작고, 일부는 훼손돼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이 어려운 저녁시간대 흡연과 유학생들의 흡연도 문제다. 주변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학교 앞 자영업을 하는 A씨는 “금연거리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며 “흡연을 제재하면 시비가 발생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음주 후 폭언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태우면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특히 새벽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흡연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 주무관은 “저녁시간대 흡연은 음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크다”며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 동행 하에 한 달에 두어 번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간단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언어소통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연거리에서의 학생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학생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다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학본부 측은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금연거리 내에서의 학생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학연수생은 10월 입학자부터 금연거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은 내년 3월 입학자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내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 이진섭 계장은 “대학주보나 총학생회 등과 협력하여 금연거리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구독하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보도를 요청해 기사 내용을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계장은 “동대문구청에 시인성이 높은 금연 안내 표지판 추가설치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앞 거리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닌,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며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7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 ·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 · 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 분	학 과	전 공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목련장학, 모범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집중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경희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11. 21(월) ~ 12. 2(금) 17:00
• 전 형 일 : 2016. 12. 3(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50,000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2017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특별과정(비학위과정) 모집

● 모집 과정
• 과정명 : 미래법률지도자 양성과정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 하는 자
•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

●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특징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무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과정 이수

구분	과정	이수 기간	취득 학점
특별과정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1학기(16주)	10학점

※ 10학점 중 법무대학원 1과목(2학점)은 반드시 수강을 하여야 함
※ 법무대학원 강의 : 화요일 야간(19:00~22:00), 토요일(9:00~12:00 / 13:00~16:00)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www.khls.ac.kr) 시간표 확인

● 등록금 : ₩3,000,000(입학금 없음)

●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11. 21(월) ~ 12. 2(금) 17:00
• 전 형 일 : 2016. 12. 3(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50,000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중앙도서관 초청 공연

장옥주의 춤 만남 _11월 알스트로메리아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은 교내 구성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옥주 교수(체육대학 겸임교수)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11월 24일(목) 15:00–16:00

● 장 소 : 예술디자인 대학 A&D홀

● 공연자 : 장옥주(체육대학 겸임교수) 및
가람무용단, 광개토 사물놀이패, 고금성

공연은 타악 및 퍼포먼스, 삼고무, 부채춤, 태평무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내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